

추계 예술대학교

2021년도 제6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구성단위	의원정수	재적의원	참석의원
교원	2	2	2
직원	1	1	1
학생	3	3	2
외부	1	1	0
회의개최 통보일		2021. 11. 12.	

1. 일 시 : 2021년 11월 24일 (수) 13:00~ 13:40
2. 장 소 : 창조관 8층 총장실
3. 출결사항
 - 참석위원(4인) : 안성아 위원장, 나승서, 김연우, 김동현, 이동현
 - 불참위원(3인) : 김세희, 이수현

4. 부의안
교비회계 2021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심의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정현주 간사 2021년도 제6회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원됨을 보고하다.
- 안성아 위원장 개회 선언 및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더불어 온라인 줌회의로 참석해 주신 학생위원 두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다.

(기획팀 담당) 자세히 설명하다.

- 이동현 위원 20억 1천여만원이 부족함에도 외부컨설팅을 강행하는 이유를 질문하다.
- 안성아 위원장 원래 계획은 2022년에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후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대학이 재정이 부족한 구조적인 상황이 높은 인건비를 부담하는 현황이므로,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효율성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음을

설명하다. 컨설팅 결과를 수용하고 경영체질을 바꾸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직원의 연수에 따른 자동 승진 등 타대학에 비해 노후된 인사제도 등은 늦었지만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노조에서 요구하신 승진 적체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기회임을 부연 설명하다. 우리 대학의 인력 수급에 대해 내부적으로 안을 마련할 전문성이 부족하여 외부에서 교과서가 될 경영 전략을 벤치 마킹 하는 것이며, 결과는 내부 구성원들께 보고회를 통해 공유하며, 협의를 통해 풀어 나갈 것임을 설명하다.

- 이동현 위원 교직원들의 급여를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내부적인 논의와 협의도 없이 외부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임을 말하다.
- 안성아 위원장 타대학이 이미 길게는 10년 전부터 인사 개혁과 임금 동결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할 때 우리 대학의 임금은 매 해 인상되어 왔으며, 직원의 승진시 노조와 합의 등 경영부분에 참여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재정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건비 조정 등도 필요하다. 수익사업 중 적자 구조인 구) 평생교육원의 정리를 하고 있으며, 중국 외 베트남 유학생 유입에 대한 대학 본부의 노력과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에서 재평가를 통한 선정대학으로의 변화 가능성 등을 미루어 개선의 지표들을 제시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이동현 위원 20억원의 재정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책은 경영진의 반성과 희생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말하다.
- 안성아 위원장 법인의 전입금 지원이 2020년에 이어 올해 12월과 내년 2월에 법인 전입금 20억이 입금될 것이며, 이후 2월과 내년 3월로 미지급분이 나뉘어 지급됨을 설명하다.
- 나승서 위원 유학생 내년 증가에 대비하여 운영, 연습실, 학사시스템, 인력 등 대비를 잘 할 것을 요청하고 당부하다.
- 안성아 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질문을 추가 요청하였으나 없으므로 원안에 대해 심의 가결을 요청하다.
- 전체 위원 동의와 제청하다.
- 안성아 위원장 전체 의원의 동의와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함을 선포하다.

6. 폐회

- 안성아 위원장 감사 인사를 끝으로 폐회 선언하다.

붙임 : 2021년도 제6회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서류 1부. 끝.

2021. 11. 24.

기록 간사 정현주 ^(인)

위원장

안 성 아




교수위원

나 승 서 (인)



학생위원

김 연 우



학생위원

김 동 현



~~학생위원~~

~~김 연 희~~

~~(인)~~

~~외부위원~~

~~이 수 현~~

~~(인)~~

직원위원

이 동 현

